

외부효과

- 외부효과(Externality)
 -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
 - 부정적 외부효과 :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춤
 - 긍정적 외부효과 :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높임

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

부정적 외부효과

- 환경오염 발생
 - 사회적 비용(사적비용 + 외부비용)이 상승
 - 기업은 사적비용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름
 -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작아짐
 -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(세금만큼 공급곡선 위로 이동)
 - 외부효과의 내부화 : 자신들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해야 함

긍정적 외부효과

-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
 - 사회적 가치(사적가치 + 외부편익)이 상승
 - 소비자는 사적 가치만 생각
 - 최적 생산량이 균형 생산량보다 많아짐
 -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조금 지급(장학금, 공립학교 운영 등)
 - 외부효과의 내부화

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

명령 - 통제 정책 : 직접 규제

- 정부는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 해결
-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
 - 오염 방지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배출량을 결정
- 배출 허용량 결정, 정화 기술 의무화 등
- 정부가 기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함

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: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

- 교정적 조세(피구세)
 -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
 - 외부비용과 조세이 같아야 함
 -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다
 - 오염방지 비용이 가장 큰 생산자에게 오염배출권이 우선적으로 배분

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: 오염배출권 거래제도

- 오염배출권의 거래를 허용
 - 오염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기준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,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다
 -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성 달성
 - 오염배출권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
 -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

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

사적 해결책의 유형

- 사업 통합
- 이해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 것 (WIN - WIN)

코즈의 정리

-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,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
-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
- 협상을 통해 양측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

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은 이유

-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외부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님
- 거래비용
 -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
 -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어렵다
- 단순 욕심으로 인한 협상 결렬
- 협상당사자가 많은 경우 의견통합의 어려움
- 정부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상을 도와줄 수 있음